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업우수 학생들의 학업실패 과정과 반응*

황매향(黃梅香)** · 선혜연(宣惠娟)*** · 정애경(鄭愛敬)**** · 김동진(金東珍)***** · 김영빈(金榮嬪)*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업우수 학생들의 학업실패 과정과 반응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입학성적이 높은 대학교 재학생 중 초·중·고교 시절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생 11명을 선정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심층면접 자료를 5명의 전문연구자들이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업우수 학생들은 성적 하락을 한번 경험하고 다시 성적이 오른 학생도 있었던 반면 반복적으로 성적의 하락과 상승이 나타나는 학생들도 있어 성적 하락 및 회복 양상에 있어 공통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들은 대체로 성적 하락 이전에 공부습관이 형성되어있고 부모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 성적 하락의 이유는 게임 등 다른 활동의 집중, 학업무관심,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주로 나타나, 이미 공부습관이 형성된 학업우수학생의 경우 학습동기의 부재가 성적 하락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성적 하락 이후 원인분석,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성적 하락에의 무관심 등 극복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반응들을 주로 보였다. 이러한 성적 하락 상황에서의 부모 반응은 무관심, 위로, 기다림, 적극적 대처 강구, 실망, 질책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학생들은 부모의 반응을 대부분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의 경우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생들은 성적 하락 상황에서의 교사의 반응 역시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와 교사가 학업우수 학생들의 성적 하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우수학생의 특성 연구 및 지원 방안 마련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학업우수, 성적 하락, 건설적 실패 반응, 질적 연구, CQR

* 이 연구는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야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KRF-2008-332-B00341) 지원에 의해 수행됨.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박사과정

*****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박사

*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업우수 학생들은 학령기를 보내면서 비교적 꾸준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스스로 문제도 잘 해결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학업우수 학생들은 학업성취 경쟁이 치열하거나 경쟁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보다도 더 정서적 취약성을 보인다(Altman, 1983; Colangelo, 1991; Delisle, 1990; Fimian, 1988; Freeman, 1985; Kaiser & Berndt, 1985). 학업성취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우수 학생들의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학생들보다 우수학생의 경우 경쟁상황에서의 불안 및 부정적 정서가 더 크게 나타나고(구미순, 2006), 학습부진아들에게는 사회문제가 우선적 스트레스인데 비해 학업우수아들은 학업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혜, 2002). 뿐만 아니라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서는 응답한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 '학업'이라고 응답하였다(문은희, 2006).

학업우수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업과 관련된 연구나 조력서비스는 학습장애를 비롯한 장애로 인한 학습부진이나 취약계층 학생 또는 수월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부진 쪽에 치중되어 있다(황매향, 2008). 학업우수 학생들의 수월성 좌절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도 임상적 자료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업우수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경험적 연구에서는 학업우수 학생들이 모든 적응지표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높은 평균을 보인다는 이유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Moon, 2004). 학업우수 학생들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기대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까지 도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선입견으로 조력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학업우수 학생들의 수월성 발휘와 신장의 좌절은 개인의 고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 될 수 있다. 학업우수 학생들이 일시적인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학습부진아 또는 학습장애아들과는 다른 학업우수아들의 학업실패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업우수 학생들 가운데 성적 하락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적 하락에 처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세밀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학업우수 학생들이 학업성적 하락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이후 수월성 발휘를 위한 긍정적인 반응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영재아동 및 학업우수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우수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공경험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일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예: 정운경, 2007 등). 그러나 학업에서의 실패 경험 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학업우수 학생은 정서적 문제의 발생빈도가 낮고 특히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어려움을 덜 겪는다. 예를 들어, 김영빈(2008)의 연구에서는 학업우수 학생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 실패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학업 성적의 하락 정도가 클수록 학문자아개념, 불안, 분노, 우울 등의 정서와 실패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우수 학생들은 항상 자신의 성취수준에 대해 불안을 갖게 되어 시험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고, 성적의 하락이 심한 좌절을 가져와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Baker, 2004).

실패 경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있다. 반복된 실패 경험은 학습자가 실패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과 태도, 행동 및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Seligman, 1975).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주로 학습자가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실패에 대한 도식을 새롭게 하여 실패 이후 수행을 돕는 전략을 개발해왔다(이웅, 2009; Diener & Dweck, 1978). 반면, 실패 경험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이후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Wortman과 Brehm(1975)은 실패경험이 오히려 후속수행을 촉진하는 현상을 심리적 반작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 힘, 능력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그 후, Clifford(1984)는 이러한 현상을 실패에 대한 내성 또는 실패내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 실패내성과 후속수행 및 경험과의 관계를 건설적 실패이론(Clifford, 1984)으로 구체화하였다. 건설적 실패이론에서는 실패 이후의 후속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는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실패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목표, 목표인식, 수행, 수행의 측정, 수행의 평가이다. 선행연구들은 이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학습자의 실패 이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으나(김성일 등, 2005; 김정원, 1993), 학업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그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곽형선, 2009;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건설적 실패이론이 소개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실패 이후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특성 및 그 차이를 연구하였다.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Miller, Brickman, & Bolen, 1975), 높은 자아존중감(Shrauger & Sorman, 1977), 실패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 둬(부진희, 서용원, 2002), 수행목표성향보다 학습목표성향이 높음(정운경, 2007), 경쟁상대의 범위를 좁게 잡

거나 유능감이 높음(이선영, 김성일, 2005), 학업적 실패내성(김아영, 1997; 김아영과 이명희, 2008)이 실패 이후 건설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 특성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패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실패내성을 예언하는 개인 특성 또는 환경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도 중요하지만, 학업우수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건설적 실패 대처를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기초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학업우수 학생들의 학업 실패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은 서구 학문에 기초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교육심리학과 학교상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학업 수행은 개인이 속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그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미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부모의 영향이라는 맥락적 측면이 가장 대표적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 중요하게 학업 성취를 예언하고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예: 최동렬, 2004; 황매향, 2006). 학업동기와 부모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격려행동과 학업정보 제공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 각각 $r=.24$, $r=.23$, 임은미, 1998). 그러나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기대는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과도한 입시경쟁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상이다. 2007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7)를 보면,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이 97%로 OECD 최고 수준인 것에 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여건의 지표들은 하위권이다. 이것은 공교육을 통한 국가차원의 수월성의 신장 노력보다 자녀의 수월성 신장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더 큰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희생이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덕웅과 장은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업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과의 상향비교를 강요할 뿐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상향비교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며, 수월성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의 단편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성적 하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업우수 학생들이 자신의 수월성 발휘에서 실패하게 된 과정과 그 반응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실제 큰 폭의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업우수 학생들을 선정하여, 초·중·고 시기 동안 어떤 성적 변화를 경험했고, 성적 하락 이전, 성적 하락 당시, 성적 하락 이후 각각 어떤 개인적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CQR: Consensus Qualitative Research) 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에 답할 것이다.

첫째, 성적 하락 경험이 있는 학업우수 학생들의 성적은 어떤 양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가?

둘째, 성적 하락 경험이 있는 학업우수 학생들은 처음 성적 하락을 경험하기 이전에 어떠한 학업관련 경험을 하였는가?

셋째, 성적 하락 경험이 있는 학업우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하락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넷째, 성적 하락 경험이 있는 학업우수 학생들은 성적이 하락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CQR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성적 상승이라는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락에서 상승까지의 과정에 주목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경험들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였다(Merriam & Simpson, 2000). 질적 연구의 여러 방법론 중 CQR은 심리상담 연구의 전통에서 요구되는 양적연구적인 객관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고려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Hill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CQR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1)자료수집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을 하며, 2)자료분석시 여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3)수집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연구자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4)주요 분석팀 이외에 적어도 한 명의 감수자가 있고, 5)자료분석시 영역 부호화, 요약반응 구성, 교차분석의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는 점이 있다(Hill et al., 2005).

이 연구의 절차는 크게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으로 나뉜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면접용 질문지를 개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으로는 먼저 분석팀을 구성

한 후 영역 부호화, 요약반응 구성, 교차분석의 단계를 거쳤으며, 각 단계에서 감수를 받았다.

1. 연구 대상

질적 연구에서는 해당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구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한다(Glesne, 1999). 이 연구에서는 성적 하락과 상승의 경험이 있는 학업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먼저 입학성적이 우수한 대학의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나의 학습변천사' 활동지에 자유로이 글을 쓰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쓴 내용을 토대로 과거에 학업 성적과 관련하여 좌절을 경험했지만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 대상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동일하도록 하고 소속 학과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교양강좌에서 각각 참여자 선별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표집된 학생은 12명이었는데, 그 중 1명은 면접내용으로 판단할 때 뚜렷한 성적 하락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모두 11명이었고,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6명이며, 이공계열이 7명, 인문사회계열이 3명, 예체능계열이 1명이다. 간략한 인적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사례번호	성별	소속학과	사례번호	성별	소속학과
사례1	남	약학대학	사례8	여	국악과
사례2	여	화학부	사례9	남	물리학부
사례3	여	간호학과	사례10	남	공과대학
사례5	남	산업공학과	사례11	남	공과대학
사례6	여	국문과	사례12	여	교육학과
사례7	남	윤리교육과			

2. 도구 및 면접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였다. 면접용 질문은 크게 성적 변화의 확인, 성적 하락 이전의 경험, 성적 하락과 관련한 경험, 성적 하락의 극복과 관련한 경험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면 “성적 하락 이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였습니까?”, “성적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보았나요?”, “성적을 회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와 같은 것이다. 자료수집에 앞서 전문가에게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전문가는 심리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학업 상담의 경험이 있으며, 이후 본 연구에 감수자의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면접은 분석팀의 전문가 중 심리상담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가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실시하였으며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접 후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축어록을 작성하고 각 사례에 사례번호를 부여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는 세 명으로 구성된 분석팀과 두 명의 감수자가 참여하였다. 분석팀 중 두 명은 상담 실무 및 연구 전문가인 상담심리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한 명은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감수자 중 한 명은 상담심리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다른 한 명은 질적 연구 전문가인 평생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분석팀은 자료 분석에 앞서 CQR 관련 문헌을 읽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한 사례의 일부분을 실제로 함께 분석해보는 모의 분석 과정을 통해 CQR에서 제안하는 훈련 절차를 거쳤다(Hill et al., 2005).

자료 분석시 분석팀원들은 CQR에서 제안된 대로 먼저 각자 면접 자료를 읽고 분석한 후 함께 모여 토론하여 분석팀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처음 분석을 실시할 때 두 사례에 대해서 면대면 만남을 통해 이 과정을 거치고, 이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면대면 만남을 가졌다. 이후 영역 부호화와 요약반응 구성, 교차분석의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면대면 만남을 우선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의견교환을 보충하였다. 또한 분석팀의 분석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수자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영역 부호화에서 요약반응, 요약반응에서 교차분석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 각각의 단계에서 감수자의 검토를 거쳤으며, 감수자의 논평을 반영하여 분석팀은 분석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내용을 확정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영역(domain)은 유사한 주제에 관한 자료를 묶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틀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분석팀은 먼저 두 개의 사례를 읽고 영역의 목록을 구성하였고, 이후의 사례를 한 개씩 읽어가며 이 초기의 영역 목록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영역을 삭제하여 영역 목록을 재구성해나갔다. 감수자는 인터뷰 자료를 읽고 분석팀이 구성한 영역이 자료를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요약반응(core idea)은 연구 참여자들이 각 영역과 관련해 말한 내용의 핵심을 명료화한 것으로, 분석자가 그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다(Hill et al.,

2005). 영역을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석팀원 각자가 구성해온 요약반응을 서로 토의함으로써 합의된 요약반응을 구성하였다. 감수자는 영역의 중요한 내용이 모두 요약되었는지, 요약반응이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수하였다.

교차분석(cross analysis)은 각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한 단계 나아간 추상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분석팀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요약반응을 사례별로 비교하고 유사한 요약반응을 범주화하였다. 감수자는 각 요약반응이 적절하게 범주화되었는지, 범주화 내용이 요약반응을 잘 반영하는지 혹은 재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적 변화 양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사례는 총 11사례로서 각 사례는 성적이 하락하는 경험을 했으나 잠재적 수월성을 발휘하여 학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다. 이들의 성적 변화 양상은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학생들의 성적 하락 경험빈도와 시기, 그 정도에 있어 공통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우선 '성적 하락 횟수'와 '성적 하락 시기', '성적 향상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범주를 나누고 각각의 하위 범주를 표 2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

먼저, 성적 하락 횟수를 보면 6사례는 한 번 성적이 하락했지만, 나머지 5사례는 두 번 이상 여러 번에 걸쳐 성적 하락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1번 사례의 경우 중1초, 중3말, 고1초, 고3말에 각각 성적이 하락했다고 보고하였다. 성적이 한 번 떨어진 경우는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성적 하락 횟수가 잦은 학생들의 경우 상승과 하락이 파도치듯이 나타나는

<표 2> 성적 변화 양상 목록

영역	범주	하위 범주	사례수*
성적 변화 양상	성적 하락 횟수	단회	대부분(6)
		2회 이상	드문(5)
		초등학교	드문(2)
	성적 하락 시기**	중학교	대부분(6)
		고등학교	드문(3)
		조금씩 서서히 올라감	드문(5)
	성적 향상의 변화 추이	상승과 하락이 파도치듯이 나타남	드문(3)
		거의 변화 없다가 어느 순간 올라감	드문(2)
		하락이후 갑작스럽게 향상되어 유지됨	드문(1)

주. *모든: 모든 사례(11)에서 나타남, 대부분(6이상): 50%이상에서 나타남, 드문(5이하): 50%미만

**2회 이상 하락한 사례의 경우 최초의 하락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표기함.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적 하락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6사례)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성적 하락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처음으로 성적이 하락한 경우도 드물게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처음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성적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향상의 변화 추이는 매우 다양했다. 조금씩 서서히 올라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승과 하락이 파도치듯이 나타나거나, 거의 변화 없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거나, 하락이후 갑작스럽게 향상되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변화 추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성적 하락의 폭은 일정하게 추출할 수 없었는데, 가장 성적이 낮았던 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기 전체 400명 학생 중 300등을 한 경우가 있었고, 이 사례를 포함하여 총 다섯 사례의 학생들이 전교 100등 이하의 낮은 성적까지 하락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성적 하락 이전 경험

성적이 하락하기 전까지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내용을 확인 후, 학업과 관련된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분석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공통 경험을 추출하는데 있으므로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응답을 한 경우 각각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례 빈도수를 표기하였다. 성적이 하락되기 이전에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경험은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음, 부모의 꾸준한 관심,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음,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학교수업을 중심으로 공부함, 기타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드문’(2)에서부터 ‘대부분’(6)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즉, 학업우수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하락 이전에도 학교나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 부모의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성적 하락 이전 경험의 범주 목록

영역	범주	사례수(중복응답 포함)
성적 하락 이전 경험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음	대부분(6)
	부모의 꾸준한 관심	드문(5)
	학습 기초가 되어 있음	드문(3)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드문(3)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함	드문(2)
	기타	드문(3)

주. 모든: 모든 사례(11)에서 나타남, 대부분(6이상): 50%이상에서 나타남, 드문(5이하): 50%미만

먼저, 성적 하락이 있기 전 몇몇 학생들(2사례)은 학원에 다니기 보다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으며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성적이 하락되기 이전에도 학생들은 학습의 기초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는데 특히 독서(책읽기) 경험이 이후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남들 학원갈 때 저는 혼자서 주로 책을 읽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분야도 다양하게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거의 한 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집에 책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니까 몇 번씩 읽은 책도 있었지만 좋아했어요. 책 읽은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본기를 닦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사례 2)

또한 몇몇 학생들(3사례)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재미를 느끼거나 학업에서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한 자신감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공부를 처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빨리 학교를 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 의욕이나 흥미는 있었구요.(사례 6)

제가 8월에 이사 가서 가자마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9월인가 10월에. 거기서 1등을 한건 아니었는데, 그 반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목이 90점 넘는 사람이 저였어요. 자신감이 생겼죠.(사례 2)

성적이 하락하기 전에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스스로,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6)의 사례에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순해서 그냥 시키면 해서... 그냥 시키면 혼 안 날려고, 부모님한테 혼 안 나고 선생님한테 혼 안 날려고 하다 보니깐 중학교 때 가서도 그렇게 하게 되고...(사례 5)

아버지가 교회 목사 성직자세요.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에는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시간 집약적으로 공부를 했을지도 몰라요.(사례 2)

한편 성적이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5사례). 부모들은 자녀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가르치거나 타인을 위해 공부해야한다고 조언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께서 누누이 공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주려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모자르지 않게.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재미있는 것을 먼저 찾았을 테니까. 그게 공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사례 2)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한 게 시골에서 잘 한 거지’ 그런 말을 하셨는데 아빠가 제가 기숙사 살다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신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사례 5)

기타에서는 형제관계에서 역할모델인 동시에 경쟁상대가 되어준 형제가 있는 경우, 공부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어려웠던 경우, 부모나 교사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각각 한 사례씩 총 3사례가 있었다.

3. 성적 하락 이유

성적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지각한 내용을 표 4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성적 하락의 이유는 노느라고 공부를 못함, 학업에 대한 무관심(동기가 낮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특히 대부분(8)의 학생들은 ‘놀아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성적 하락 이유의 범주 목록

영역	범주	사례수(중복응답 포함)
성적 하락이유	놀아서	대부분(8)
	학업에 대한 무관심(동기 낮음)	드문(5)
	학교생활 적응 못함	드문(5)

주. 모든: 모든 사례(11)에서 나타남, 대부분(6이상): 50%이상에서 나타남, 드문(5이하): 50%미만

가장 많은 수의 사례(8사례)에서 나타난 ‘놀아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의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 게임이나 소설책에 빠져 놀거나, 친구(이성친구 포함)와 놀러 다니거나, 교내 서클 혹은 인기가수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놀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때 한참 컴퓨터 게임 같은 거에 빠져서, 게임하고 소설 같은 거 판타지소설 같은 거... 그런 거 읽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중략- 그런 데 한번 빠지니까, 공부를 못해서..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도 성적이 엄청 낮았어요. -중략- 낮아지니까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계속 게임하고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사례 3)

학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동기가 낮았던 경우는 학원을 계속 다녔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성적이 낮게 나온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 정보에 대해 무지했던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필요를 못 느껴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경우, 서클 활동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동기가 낮아진 경우 등이 있었다.

중학교 때는 그런거 없이 그냥 그냥 노력해 보고 어떤 날은 '공부한 거 해봐야겠다' 싶어 그냥 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 자체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필요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사례 9)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진학 후 변화된 공부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거나 친구들과 싸우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성적 하락 이유를 보고하였다.

되게 적응을 못했어요. 되게 새로운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냥 수학도 중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요. 그냥 갑자기 많은 과목을 배우니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사례 1)

4. 성적 하락 이후 반응

성적이 하락한 이후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변화(반응)를 크게 학습자 본인의 '자기' 반응과 유의미한 타자인 '부모'와 '교사'의 반응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의 하위범주를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성적 하락 이후 학생 자신의 반응으로는 성적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 성적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성적 하락에 대한 무관심, 성적 하락을 문제로 인식, 성적 하락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하위 범주들은 '드문(4)'경우에서부터 '대부분(8)'의 사례에서 보고되었다.

<표 5> 성적 하락 이후 반응의 범주 목록

영역	범주	하위 범주	사례수(중복응답 포함)
성적 하락 이후 반응	자신	성적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	대부분(8)
		성적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드문(5)
		성적 하락에 대한 무관심	드문(5)
		성적 하락을 문제로 인식	드문(4)
		성적 하락에 대한 부정적 정서	드문(4)
	부모	믿고 기다림	드문(5)
		실망하며 질책함	드문(5)
	교사	형식적인 관여	대부분(6)
		이야기를 들어줌	드문(1)

주. 모든: 모든 사례(11)에서 나타남, 대부분(6이상): 50%이상에서 나타남, 드문(5이하): 50%미만

성적이 하락하자 학생들 대부분(8사례)의 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스스로의 반응은 성적 하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 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랑 공부하던 것도 너무 달라졌고, 그리고 그때는 학원 같은 것도 안다녔고, 그랬는데 중학교 가니까 갑자기 그렇게 시키고, 그니까, 아,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고 하니깐 그만큼 나오는구나.(사례 3)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버리니깐 맨 뒤에 앉았다는 게 너무 그게 이유라고 생각이 되버린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놀게 되어서 그렇게 된건데 저는 '그냥 뒤에 앉았기 때문이다.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혼자 생각해버리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많이 놀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사례 5)

그게 중 2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학원 같은거 안다니고 그니까 수업 끝나고 공부를 따로 하는게 없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사례 9)

한편, 성적 하락 후 성적 하락에 대해 무관심을 나타내거나 혹은 성적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는 학생들(5사례)도 있었다.

40등 안팎으로 이렇게 반등수보다 더 많이 내려갔는데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비평준화 고등학교였는데 정원이 대충 나오잖아요, 뭐 고등학교 정원이 얼마니까 중학교에서 몇 등까진 해야 거길 가지... 이게 있는데 그 안쪽이니까 뭐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 같구요. 그냥 방송부 생활을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구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사례 6)

별로 짐작은 안 했어요. 그냥 기분은 조금 나쁘고. 불안해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중략- 개념이 없었던건지 낙천적이었던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좌절, 그런 거는 안 했어요.(사례 1)

제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건 일시적인 슬럼프다, 아, 슬럼프라기 보다는 380점을 맞았는데. 아, 이 점수가 내 점수다. 나머지만 메꾸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사례 7)

이와는 달리 성적 하락을 문제로서 인식하면서 성적향상의 계기로 삼거나, 성적 하락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학생들(4사례)도 다음과 같이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고, 원인을 함께 분석하는 등(예, 사례5) 적극적인 대처를 함께 하였다.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떨어져 버리니깐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번도 그렇게 떨어져 본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일부러 앞에 앉았어요. 원래 2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수업을 그렇게 엄청 열심히 듣거나 복습을 철저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사례 5)

오기 같은 거죠. 더 내려 갈 때가 물론 여럿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내려가기가 싫었던 거죠. -중략- 그때는 진짜 나락을 경험하는,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중략- 유지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이지만

잘 된다면 목표는 이제, 처음 등수...(사례 10)

성적 하락 후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언급한 데 반해 부모 및 교사와 같은 주변 인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부모 및 교사의 반응에 대해 언급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자녀를 믿고 기다리거나(5사례), 실망하여 자녀를 질책했던 것(5사례)으로 보고되었다. 믿고 기다리는 부모들은 내색은 안 하면서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고, 놀랐지만 꾸준히 나아지면 된다고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잔소리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부를 안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성적에 실망하여 과외를 시켜주거나, 뉘달 하면서 추궁하기도 하고, 자퇴서를 쓰라는 담임교사와 함께 질책하는 부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 들어와서 처음에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3등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처음 실망을 하시고... -중략- 계속 이제 과외도 붙이시고 뭐도 하고 했는데 성적이 5등에서 10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는 했어요. 근데 물론 부모님은 당연히 만족을 못하시죠.(사례 8)

한창 반항할 때가 1학년 말에서... 그 때 이제 기고만장했죠.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기고만장했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는 저희는 그렇게 엄하신 분이 아니고 어머니가 더 엄하신데, 어머니가 그냥 집으로 불렀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중략- '너 공부하기 싫으면 일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중략- 담임선생님이랑 어머니랑 성격이 맞아서 자퇴서 어머니가 쓸 때 담임선생님이 말리는 게 아니라 자퇴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쓰는 걸 제가 봤어요.(사례 11)

한편 학생들의 성적 하락에 대한 교사의 반응으로는 대부분(6)이 형식적인 관여를 보고하였고, 드물게 이야기를 들어준 경우(1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냥 권유는 하셨어요, '학원 다니면 좀 낫지 않겠니?' 정도. 근데 안 갔죠. -중략-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 선배 때까지는 잘했는데 너희가 평준화로 들어왔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교 3등, 뭐 이렇게 해도 '전년도에 3등한 언니 점수에는 못 미치니까 계속 나아져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셨구요.(사례2)

선생님들은 '성적이 왜 떨어졌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별 말씀 안하셨던 것 같아요.(사례9)

선생님들은, 제일 맨 처음에 걱정했던 선생님이 저를 고등학교로 스카웃 했던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려서 따로 혼자 둘이서 얘기하고 그랬던 선생님이 있었구요.(사례11)

IV. 논의

이 연구는 성적 하락이라는 실패 경험이 있는 학업우수 학생들과의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학업우수 학생들이 학업성적 하락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적 하락의 경험을 성적 하락의 양상, 성적 하락 이전의 경험, 성적 하락 이유, 성적 하락 이후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영역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논의를 각 영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변화 양상에서는 성적 하락의 빈도, 시기, 정도 등에 있어 어떤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여러 번에 걸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도 있었고 매우 큰 폭의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한 번 성적이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거나 어느 정도의 성적은 유지해야 높은 성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통념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적 하락 이전 경험에서는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학생과 부모의 꾸준한 관심이 있었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공부하는 습관이 학업기초보다 더 빈번하게 보고된 것이 이 연구결과에서 주목할만 하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연구자는 ‘아주 기초가 없는 것보다 공부습관이 없는 아이가 확실히 성적회복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과와 일치된다. 기초학습기능이나 선행학습이 이후 학업성취도를 예언한다는 주장은 학업상담 영역에서 계속 지지되고 있지만(예, 김계현 외, 2009; 오성삼과 구병두, 1999; 황매향, 2008), 학령기 초기에 이루어지는 학습습관 형성의 중요성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향후 학령초기의 학습습관 형성의 영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한편, 부모의 꾸준한 관심 역시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황매향, 2006; Arbona, 2000)는 사실이 학업우수 학생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적 하락 이유로는 “학업 이외의 것에 대한 관심”과 “학업에 대한 무관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학업에 대한 무관심”의 하위내용으로는 공부활동은 지속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은 경우, 진학정보가 없었던 경우,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와 같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인식하지 못한 “동기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모든 학업부진 학생들의 원인이 동기의 부재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학업부진 학생들의 부진 원인으로서는 동기부재 외에도 학습능력 부족, 선행학습 결손, 학습방법 미숙 등 다양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학생들은 공부를 잘 했던 학생들, 즉 학업상황에서 과거 성공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관련 자아개념이 높고(박춘성, 2005; 신영희, 2005; 윤경희, 2003) 학습능력이나 선행학습, 학습방법 등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어서, 더욱 “동기의 부재”가 원인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Kleinke(1978)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공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성공'을 자신의 능력의 증거로 해석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였다라도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에 돌리기 보다는 노력 부족에서 온 실패라고 보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반응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에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였던 학생들 역시 지금의 성적 하락을 노력부족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노력부족에의 귀인은 당면한 실패에 대해 자신이 노력하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노력의 부족으로 귀인을 하는 습관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행동으로의 복귀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하며, 그 결과 성적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강점이 있다.

넷째, 성적 하락 이후 반응에서 학업우수 학생들은 성적의 하락을 지각하고 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적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행동을 하였다. 성적 하락은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만, 연구대상 학생들은 성적 하락의 상황에서 우울이나 분노, 불안만을 느끼기보다 실패 극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처를 보여주었다. 연구대상 학생들이 보여준 문제행동의 원인 분석은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다(황매향, 2008). 학업에서의 성공경험이 있고 학습습관을 형성한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성적 하락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보였다. 노력부족에의 귀인과 이러한 성적 하락의 원인 분석은 이들이 성적 하락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게 해주고 그 결과 성적상승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반응은 Clifford(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Clifford는 이와 같이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상황에서의 실패경험에 대하여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학업적 실패내성"이라고 명명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과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성적 하락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후 성적향상을 이루어내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김영빈, 2008).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이와 같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행동만을 취한 것은 아니다. 연구대상 중에는 성적 하락을 외면하거나 비합리적인 기대를 갖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실패상황에서 영재학생들의 정서적 변화와 대처를 연구한 Kaiser와 Berndt(1985)의 연구에서도, 학업우수학생들의 적응력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중 15~20%의 학생들은 한 번의 성적 하락을 통해 큰 좌절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학업우수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실패상황에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잘 대처하는 편이지만, 학업우수학생 안에서도 정서적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부적응과 위기를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지원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김영빈, 2008; 윤여홍, 2000).

다섯째, 자녀의 성적 하락 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인 요소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자녀의 성적 하락에 대해 별 내색을 하지 않는 경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우, 믿고 기다리는 경우, 과외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권유하는 경우, 자녀의 성적에 실

망하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경우 등 11사례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도출되었다. 오히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생 당사자는 이러한 다양한 부모의 반응 중 상당수를 부적절하게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김영빈(2008)의 연구에서처럼 학업우수학생의 성적이 하락하였을 때 부모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위기나 부정적인 경험에 대처하기에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의 자녀에게 적절한 반응과 지원을 해주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학생들의 성적하락에 대한 교사의 반응 역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학생들 또한 교사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지각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학업우수학생의 성적 하락 시점에서의 주요 개입 중 하나는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이 될 수 있다. “잘 하던 아이니까 잘 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두거나 자신의 실망만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서적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함을 부모와 교사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학업우수 학생들의 성적 하락이라는 현상에 대한 초기 연구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 경험에 대한 회상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기억 왜곡에 따른 오류 가능성이 있다. 수월성을 가진 집단을 표집하기 위해 현재 높은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이미 성공을 이룬 집단으로 자신의 성공경험이 실패경험의 부정적 기억들을 상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 이후 회복하지 못한 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성공집단의 실패과정과 그 대응 중 어떤 내용이 실패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학업우수 학생들에 대한 비교연구도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학업우수 학생들의 실패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학업성적 하락 이후 이러한 실패경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와 수월성 회복과정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형선(2009). 학업우수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실패내성의 종단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OECD 교육지표. 2007: Education at a glance.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구미순 (2006). 경쟁 또는 비경쟁 협동학습 수업전략이 학습동기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천성문 (2009). 학교상담과 생활지도(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성일, 소연희, 윤미선, 김원식, 임가람, 이우걸, 이명진, 이선영 (2005). 수행에 대한 피드백 제공방식과 지각된 유능감 및 수행목표 성향이 과제흥미도와 수행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9(1), 115-133.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영빈 (2008). 학업우수 고등학생의 학업서열 변화와 자아개념, 정서, 실패내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1993). 행동 및 상태지향적 학습자의 목표설정원 및 목표난이도에 따른 학업성취 수행수준과 실패이후의 반응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은희 (2006). 고등학교 학습 우수아의 생활 특성 분석.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춘성 (2005).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 학생과 성적부진 학생의 특성.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부진희, 서용원 (2002). 경쟁상황에서 성공실패환류와 통제소재가 내적동기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3-368.
- 신영희 (2005). 중학교 과학·수학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적 자기조절 동기유형과 실패내성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삼, 구병두 (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 99-122.
- 윤경희 (2003).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331-353.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79-101.
- 이경혜 (2002).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의 스트레스 수준 및 학교생활 적응.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김성일 (2005). 지각된 유능감과 경쟁상대 범위가 흥미와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

- 구, 19(4), 1109-1123.
- 이웅 (2009). Jigsaw식 학업수행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수영 (2007). 학업 우수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2007). 목표 지향성이 실패 후 아동의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2), 185-203.
- 최동렬 (2004). 학생의 사회관계 친밀도와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덕용, 장은영 (2003). 사회비교 동기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 황매향 (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황매향 (2008). 학업상담. 서울: 학지사.
-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학업우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1(4), 1029-1046.
- Altman, R. (1983).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search model. *Roeper Review*, 6, 65-68.
- Arbona, C. (2000).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aged children: Precursors to career develop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270-309).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aker, J. A. (2004).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academically gifted adolescents. In S. M. Moon (Ed.), *Social/emotional issues, underachievement, and counseling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pp. 1-19). Thousand Oak, CA: Corwin.
- Clifford, M. M. (1984). Thought on a 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 *Educational Psychologist*, 19(2), 108-120.
- Colangelo, N. M. (1991).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273-284). Boston: Allyn & Bacon.
- Delisle, J. R. (1990) The gifted adolescent at risk: Strategies and resources for suicide prevention among gifted youth.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212-228.
- Diener, E. L. & Dweck, C. S. (1978). An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51-462.
- Fimanan, M. J. (1988). Predictor of classroom stress and burnout experienced by gifted and talented

-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 25, 392-405.
- Freeman, J. (1985). Emotional aspects of giftedness. In J. Freeman (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 (pp. 247-264). New York: John Wiley & Sons.
- Glesne, C.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Longma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Kaiser, C., & Berndt, D. (1985). Predictors of loneliness in the gifted adolescent. *Gifted Child Quarterly*, 29, 74-77.
- Kleinke, C. L. (1978). *Self-preception: The psychology of personal awareness*. San Francisco: Freeman.
- Merriam, S. B., & Simpson, E. L. (2000). *A guide to research for educators and trainers of adults* (2nd updated ed.). Malabar, FL: Krieger.
- Miller, R. L., Brickman, P. & Bolen, D. (1975). Attribution versus persuasion as a means for modify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3), 430-441.
- Moon, S. M. (Eds.) (2004). *Social/emotional issues, underachievement, and counseling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Thousand Oak, CA: Corwin.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Freeman.
- Shrauger, J. S. & Sorman, P. B. (1977). Self-evaluation, initial success and failure, and improvement as determinants of persist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784-795.
- Wortman, C. B., & Brehm, J. W. (1975). Responses to uncontrollable outcomes.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8). New York: Academic Press.

- * 논문접수 2009년 8월 1일 / 1차 심사 2009년 8월 13일 / 2차 심사 2009년 9월 11일 / 게재승인 2009년 9월 22일

- * 황매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담", "초등교사를 위한 문제행동 상담 길잡이" 등이 있다.

- * e-mail: maehyang@ginue.ac.kr

- * 선혜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상담기법",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등이 있다.

- * e-mail: hyseon@kut.ac.kr

- * 정애경: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의 Counseling Psychology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주요논문으로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이 있다.

- * e-mail: accp2007@naver.com

- * 김동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 미국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프리랜서 연구자로 활동 중이며, 주요논문으로 "Exploring the meaning of success in Korean career women's lives"가 있다.

- * e-mail: happylearner@gmail.com

- * 김영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논문으로 "학업우수 고등학생의 학업시열 변화와 자아개념, 정서, 실패내성의 관계", 주요저서로 "상담과 심리검사",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기법"이 있다.

- * e-mail: kybean@hanmail.net

Abstract

Smart students' academic underachievement and their responses

Hwang, Mae-hyang* · Seon, Hye-Yon** · Jung, Ae Kyung***
Kim Dong Jin**** · Kim, Young-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ademic failures of academically talented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responses to underachievements. To do this, smart students' experiences of the academic achievement fluctuations through school ages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terviews and analyzed based on CQR. The sample group of this study consisted of eleven students from a high ranked university.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academic failure but overcame were selected based on the fluctuations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chool ages. Retrospective data of their experiences of academic success and failure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using Consensual Quality Research method(Hill, Thomson, & Williams, 1997; Hill et al., 2005) and five researchers were participated in CQR proces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a) The patterns of academic achievement fluctuations were different from each case, some students experienced just one time academic failure but other students several times; b) they already had good study habits and had been taken care of by their parents through school ages; c) the main reason of the academic failure was the lack of study time because of other activities such as computer games, reading comic books, or hanging out with friend, also secondly, academic amotivation and school maladjustment caused academic failure of smart girls and boys; d) smart students responded to academic failure constructively, for example, they analyse the causes of failure, expect the increase of scores with patience, or indifference to academic declines; e) their parents and teachers showed various responses including unconcern, recognition, waiting, positive management, disappointment, rebuke, and so on. But most students regarded them as helpless. Last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smart students, academic underachievement, constructive failure response, qualitative research, CQR

*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cture profess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Freelance researcher

***** Admissions Officer, Korea University